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는 95.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7.2%, 경공업 부문 3.9% 각각 감소
 - 서울의 9월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85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0월 백화점 정기 세일이 판매액을 증가 시킨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로 전월대비 0.0% 보합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3% 하락, 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7%,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서울의 10월 취업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7천명(3.3%)이 증가한 4,960천명임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9천명(1.8%), 여자는 83천명(4.0%)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전국대비(1.3%) 0.1%p 차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자는 1.0p 상승한 5.3%, 여자는 0.4%p 상승한 3.6%로 나타남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8%p 하락, 여자는 1.5%p로 각각 상승
 - 서울의 실업률(4.6%)은 전국 실업률(3.3%)과 1.3%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2%)과 전국(59.4%)이 0.2%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 **서울의 10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45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6%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2009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주택 및 공장, 교회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9.2% 감소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7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1%)의 주택매매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낙폭은 축소됨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3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 서울(0.9%)의 주택전세가격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며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됨

금융

- **서울지역 9월의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9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0조 9,15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5,777억원(0.29%) 증가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수는 1,699개로 전년동월대비 0.3%(5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4.4%(214개) 증가하였음
- **서울의 10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2.0%(1개) 감소
- **서울의 10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수출은 41.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3%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순
 - 서울의 10월 수입은 87.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2%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의류 등의 순

| 생 · 산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는 95.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18.7%)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6.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9.8%)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 부문 각각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하며 5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여 7개월만에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 전월대비로는 4.2% 감소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복 및 모피(-8.8%)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3.6%), 기계장비(38.3%) 등의 호조로 13.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23.1%), 전문과학, 기술(-5.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12.8%), 운수(10.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9.3%) 등이 증가하여 3.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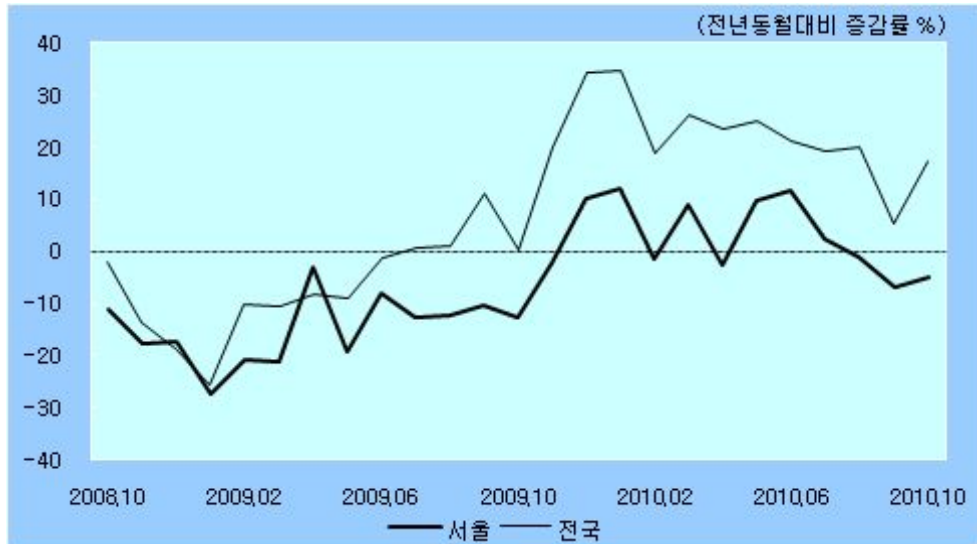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0.9	13.5	2.7	-1.3	-6.8	-4.8
	중공업	-20.5	-3.7	-2.4	-13.6	-4.8	-7.2
	경공업	-6.2	24.4	5.4	5.2	-7.5	-3.9
	전국	0.2	17.2	15.6	17	3.9	13.5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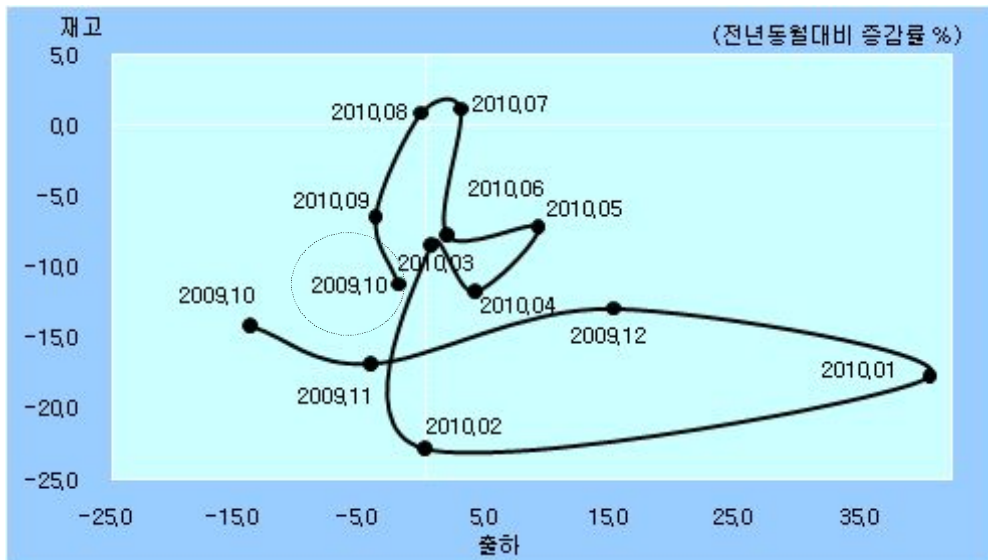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0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의 10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증가, 출하 감소
 - 서울의 10월 재고지수는 138.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 업종별로는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 함
 - 출하 증가, 재고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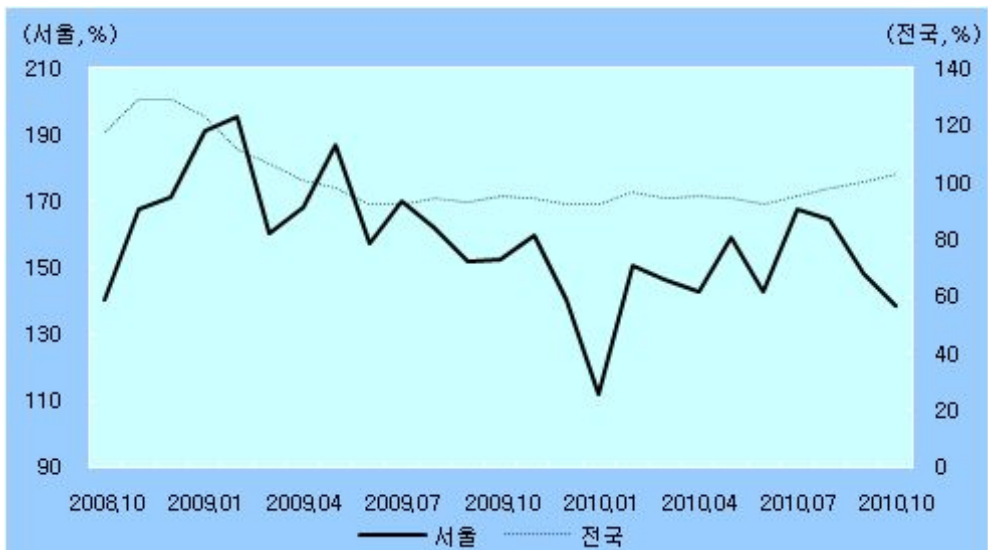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감소
 - 서울의 10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38.3%로 전월대비 10.0%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02.6%로 전월대비 2.3%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8.5%p 감소한 143.2%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7.1%p 감소한 131.4%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재고율	서울	152.5	142.8	167.4	164.4	148.3	138.3	-10.0
	중공업	146.9	136.2	164.2	147.2	161.7	143.2	-18.5
	경공업	148.1	142.9	164.5	165.4	138.5	131.4	-7.1
	전국	95	92.3	95.2	97.6	100.3	102.6	2.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85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6.4% 증가, 대형마트 8.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0월 백화점 정기 세일이 판매액을 증가 시킨 것으로 판단됨

■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1,30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 대형마트는 8.3% 증가함
- 유형별로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8.0%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7.1%,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0%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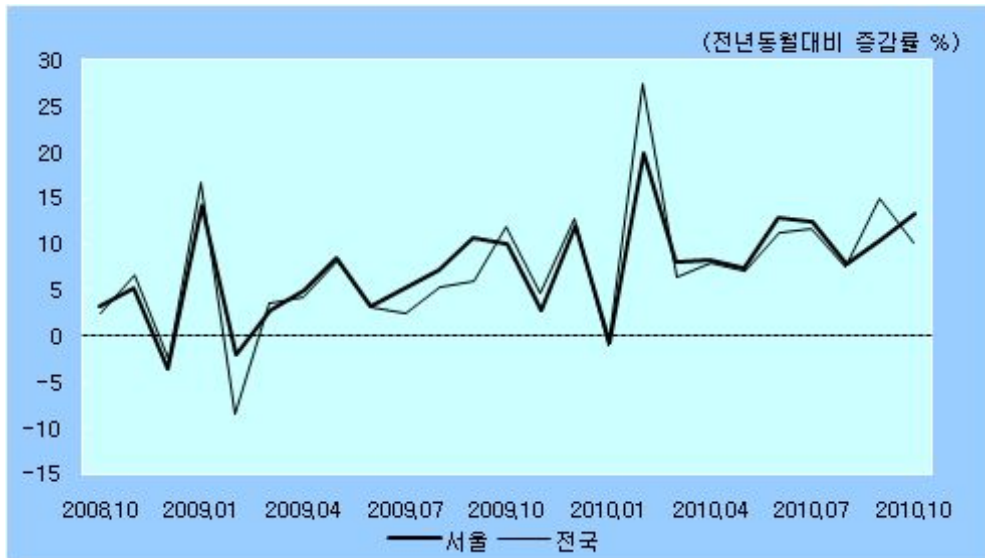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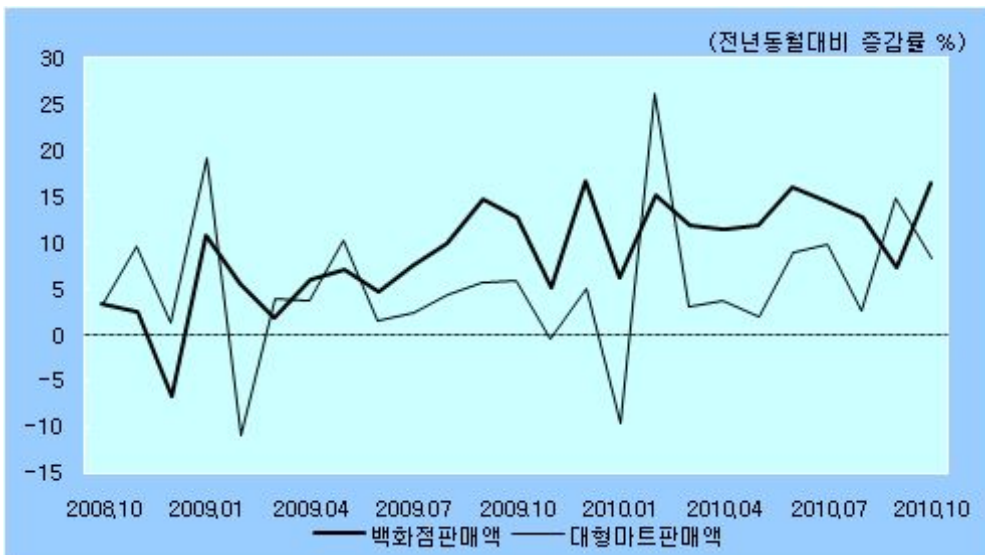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판매액	서울	1575.0 (10.0)	1535.3 (12.9)	1508.9 (12.4)	1426.0 (7.9)	1739.8 (10.5)	1785.0 (13.3)
	백화점	970.9 (12.7)	887.9 (16.0)	839.0 (14.5)	792.0 (12.7)	964.2 (7.2)	1130.6 (16.4)
	대형마트 (할인점)	604.1 (5.8)	647.3 (9.0)	669.9 (9.9)	634.0 (2.5)	775.6 (14.9)	654.4 (8.3)
전국	4662.1 (11.8)	4529.9 (11.2)	4624.3 (11.6)	4385.2 (7.6)	5306.3 (14.9)	5130.9 (10.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포함

■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포함

- 서울의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전도시:117.8, 2005년=100)로 전월대비 0.0%(전도시:0.2%) 포함, 전년동월대비 3.7%(전도시:4.1%)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6.2% 상승,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 서울의 10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전도시:0.3%) 하락, 전년동월대비 4.1%(전도시:4.8%)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7% (전도시:0.6%) 하락, 전년동월대비 44.9%(전도시:49.4%) 상승

■ 전국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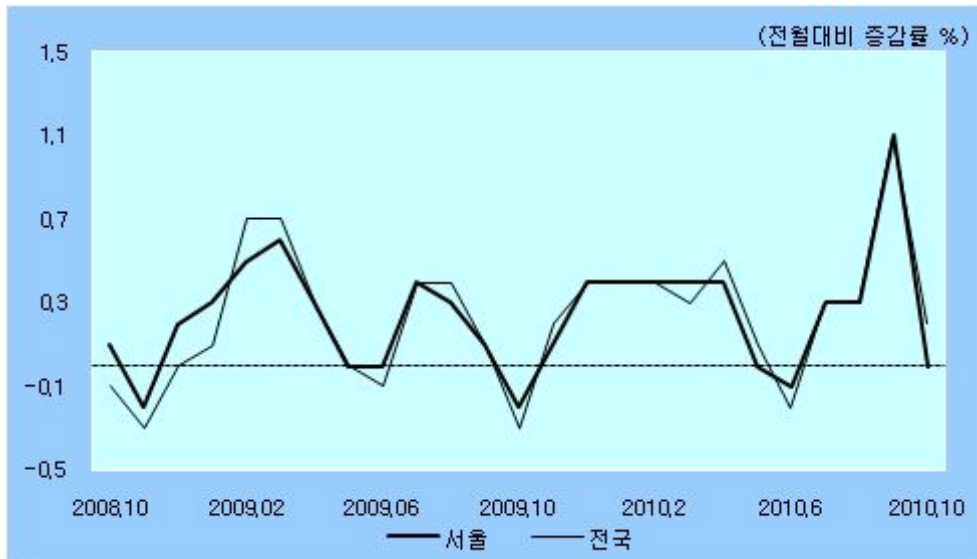
- 전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8(2005년=100)로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의 1.1%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 축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8%, 전년동기대비 3.3%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경기도는 0.1% 하락하였고, 서울과 충북은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는 0.2~0.4%씩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서울	-0.2 (2.2)	0.0 (2.5)	-0.1 (2.4)	0.3 (2.4)	0.3 (2.5)	1.1 (3.5)	0.0 (3.7)	
	상품 성질별	상품	-0.5 (2.5)	-0.3 (3.1)	-0.3 (3.2)	0.6 (3.2)	0.7 (3.5)	2.6 (6.0)	-0.3 (6.2)
		서비스	0.0 (2.0)	0.2 (2.2)	0.0 (2.1)	0.3 (2.0)	0.1 (1.9)	0.4 (2.2)	0.2 (2.4)
	생활물가	-0.3 (2.0)	-0.3 (2.6)	-0.4 (2.5)	0.3 (2.4)	0.3 (2.4)	1.7 (3.9)	-0.2 (4.1)	
	신선식품	-2.8 (5.0)	-4.2 (7.9)	-7.3 (9.3)	4.7 (12.5)	5.5 (16.6)	22.1 (44.8)	-2.7 (44.9)	
	전국	-0.3 (2.0)	0.1 (2.7)	-0.2 (2.6)	0.3 (2.6)	0.3 (2.6)	1.1 (3.6)	0.2 (4.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11월 멸치, 고등어, 양파를 제외한 생활필수품목 모두 증가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22.87%로 하락, 나머지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10.0% 상승
- 청과류 중 양파만 9.3%로 상승하였고, 배추는 92.0%, 무는 18.7%, 파는 11.1%, 마늘은 1.9%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32.2% 상승, 양곡류인 쌀은 2.7% 하락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율
양곡	쌀	41,901	42,143	41,968	42,435	41,320	-2.7
수산	멸치	2,574	2,463	2,582	2,543	2,560	0.7
	고등어	2,568	2,500	2,500	2,714	4,000	32.2
채소	배추	4,560	4,903	7,816	7,679	4,000	-92.0
	무	2,231	2,646	2,983	4,069	3,428	-18.7
	파	2,820	2,315	4,766	5,927	5,336	-11.1
	양파	1,620	1,592	1,717	1,726	1,904	9.3
	마늘	9,787	10,713	11,383	12,329	12,096	-1.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고랭지(상품), 봄(상품)), 무(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15세이상 인구는 8,3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천명(0.7%)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2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9천명(3.6%)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으며, 남자는 84천명(2.9%), 여자는 95천명(4.4%)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천명(-3.6%)이 감소

■ 전국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 10월 15세이상인구는 40,7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9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5,0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9천명(1.4%)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03천명으로 223천명(1.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401천명으로 126천명(1.2%)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1.2 (0.3)	2.3 (0.5)	1.7 (-0.1)	2.7 (0.7)	3.5 (-1.2)	3.4 (0.0)	3.6 (0.5)
	남자	-1.2 (0.2)	0.4 (-0.3)	0.1 (0.2)	1.3 (0.8)	2.6 (-0.5)	2.4 (-0.4)	2.9 (0.6)
	여자	-1.2 (0.5)	5.0 (1.5)	3.8 (-0.5)	4.6 (0.6)	4.6 (-2.0)	4.6 (0.6)	4.4 (0.3)
	전국	0.3 (0.1)	1.8 (1.0)	0.9 (0.2)	1.9 (0.3)	1.3 (-1.6)	1.1 (0.3)	1.4 (0.4)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0.4	62.2	62.1	62.5	61.8	61.8	62.1
	남자	71.7	73.0	73.1	73.6	73.2	73.0	73.4
	여자	49.6	52.1	51.8	52.0	51.0	51.2	51.4
	전국	61.3	61.9	62.0	62.1	61.1	61.2	61.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 서울의 10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자는 10월 취업자는 4,9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천명(2.7%)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1천명, 여자는 2,1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9천명(1.8%), 여자는 83천명(4.0%)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71.7%), 건설업 44천명(12.5%), 제조업 57천명(1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3천명(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9천명(2.1%)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54천명(-3.9%)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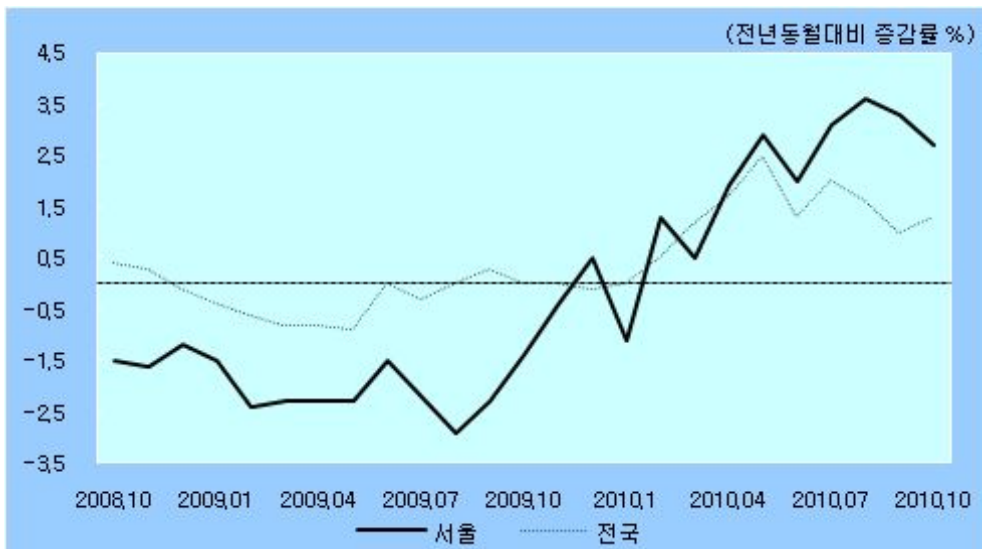
- 전국의 10월 취업자는 24,1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6천명(1.3%)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8천명(1.6%)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86천명으로 87천명(0.9%)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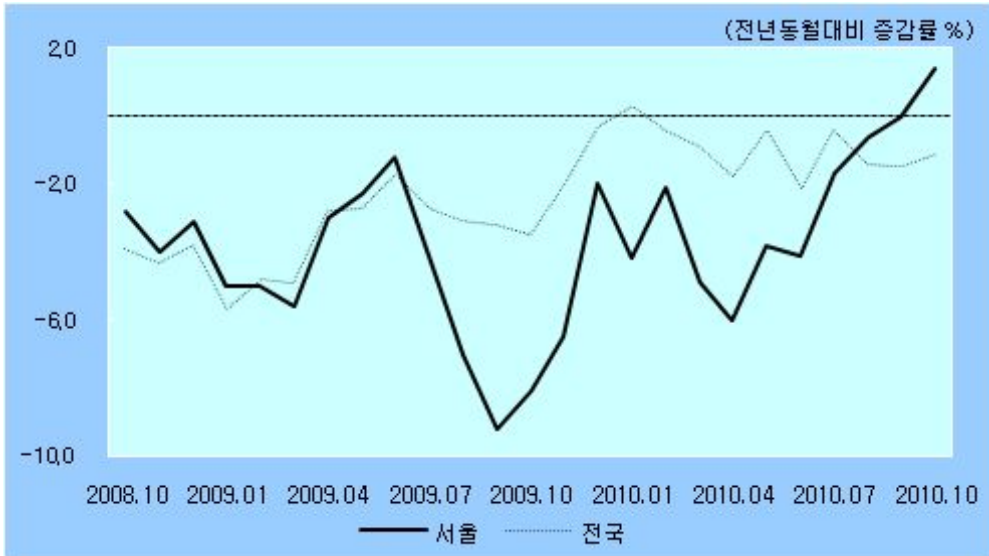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취업자	서울	-1.4 (0.8)	2.9 (1.4)	2.0 (-0.1)	3.1 (0.5)	3.6 (-1.0)	3.3 (0.0)	2.7 (0.3)	
	남자	-1.3 (1.0)	0.6 (0.9)	0.5 (0.3)	2.0 (0.7)	3.0 (-0.4)	2.6 (-0.4)	1.8 (0.2)	
	여자	-1.5 (0.4)	6.0 (2.1)	4.1 (-0.6)	4.6 (0.2)	4.5 (-1.8)	4.1 (0.4)	4.0 (0.4)	
	전국	0.0 (0.2)	2.5 (1.6)	1.3 (-0.1)	2.0 (0.1)	1.6 (-1.2)	1.0 (0.2)	1.3 (0.5)	
청년층 취업자	서울	-8.1 (-0.9)	-3.8 (4.4)	-4.1 (-1.2)	-1.7 (1.8)	-0.6 (-2.9)	0.0 (-2.8)	1.4 (0.6)	
	전국	-3.5 (-0.9)	-0.4 (3.1)	-2.1 (-1.9)	-0.4 (3.1)	-1.4 (-4.0)	-1.5 (-2.0)	-1.1 (-0.5)	
고령층 취업자	서울	9.4 (3.2)	16.2 (2.9)	7.8 (-0.4)	10.6 (0.8)	8.9 (-2.3)	7.8 (2.7)	3.5 (-0.9)	
	전국	4.4 (0.5)	5.8 (4.8)	2.4 (0.9)	3.4 (-1.1)	1.7 (-1.5)	0.9 (1.1)	0.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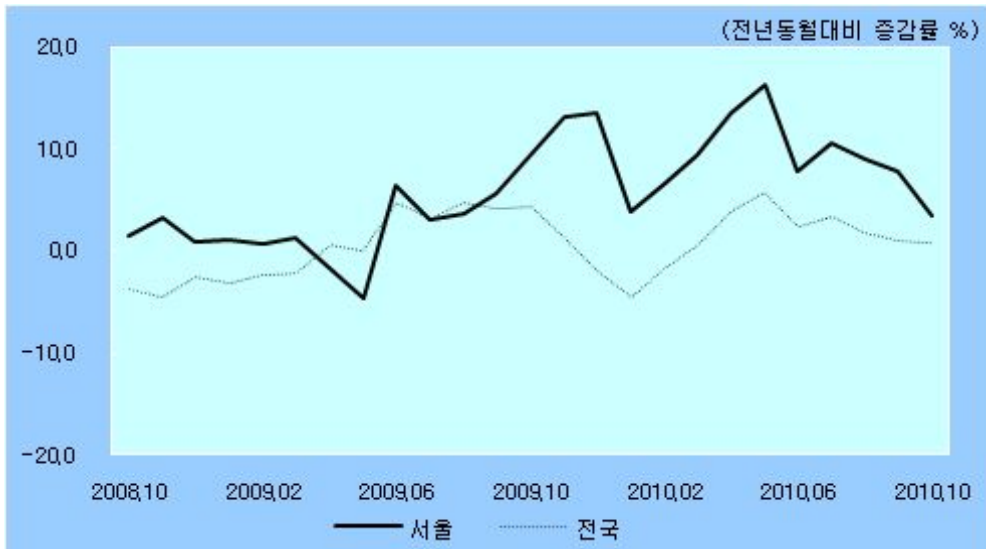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천명(169.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51천명(11.8%), 사무종사자 53천명(6.5%)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53천명(-4.1%),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8천명(-1.9%)이 각각 감소하였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77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3천명(-1.9%)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5천명(4.3%)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1천명(-3.0%)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명(4.7%)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9천명(4.4%), 임시근로자는 69천명(5.9%)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3천명(-0.6%)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일시휴직자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8.8%)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7%)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천명(9.3%)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28천명(8.5%)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0천명(3.6%)이 증가하였으나,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28천명(-1.9%)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36.9%)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별	제조업	-17.5 (0.9)	0.5 (-0.1)	5.1 (-0.4)	5.6 (-0.8)	9.0 (-0.6)	9.2 (-0.8)	11.6 (3.2)
	SOC 및 기타서비스업	0.9 (0.8)	3.2 (1.6)	1.7 (-0.1)	2.8 (0.6)	3.0 (-1.1)	2.6 (0.0)	1.7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6 (1.1)	4.5 (2.0)	2.0 (0.5)	3.3 (0.9)	2.2 (-2.8)	3.5 (0.7)	2.1 (-0.3)
	도소매·음식숙박	1.1 (0.1)	2.8 (2.4)	-2.5 (-4.2)	-0.7 (1.9)	-0.8 (-0.1)	-2.8 (-0.5)	-3.9 (-1.0)
	전기·운수·통신·금융	3.5 (1.1)	3.3 (0.0)	6.5 (2.8)	3.1 (-3.9)	5.0 (0.2)	3.8 (0.0)	5.6 (2.9)
	건설업	-16.2 (1.3)	-2.2 (0.2)	5.2 (6.1)	13.1 (4.1)	18.0 (2.0)	16.0 (-1.3)	12.5 (-1.8)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7 (-0.2)	1.2 (0.0)	0.3 (1.1)	-0.2 (0.1)	-2.3 (-3.0)	-2.9 (-0.5)	-1.9 (0.8)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9.0 (3.4)	10.4 (2.5)	10.0 (-0.2)	13.7 (1.2)	15.1 (-1.1)	16.0 (0.7)	11.8 (-0.3)
	서비스·판매종사자	0.1 (1.8)	-0.9 (1.5)	-4.7 (-3.0)	-3.4 (0.9)	-1.2 (0.5)	-1.1 (0.8)	-4.1 (-1.3)
	사무종사자	1.1 (-2.9)	-0.3 (1.8)	2.7 (2.1)	2.1 (-0.7)	3.5 (0.3)	0.8 (-1.7)	6.5 (2.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8 (0.9)	4.2 (2.3)	3.2 (0.1)	4.8 (0.8)	5.5 (-0.6)	4.6 (-0.3)	4.3 (0.6)
	비임금근로자	-3.1 (0.3)	-1.0 (-1.3)	-1.4 (-1.0)	-1.8 (-0.6)	-2.1 (-2.2)	-0.8 (1.0)	-1.9 (-0.8)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10월 실업률 및 고용률 각각 상승

■ 서울의 10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실업자는 2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명(24.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9천명, 여자는 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명(28.4%), 11천명(16.4%)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 여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1.0%p, 0.4%p 각각 상승

■ 전국의 10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실업자는 8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명(4.2%)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1.0%) 감소하였고, 여자는 3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13.8%) 증가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서울 및 전국의 10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5%,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8%p, 1.5%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4%)과 0.2%p 차이
- 전국의 10월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자는 48.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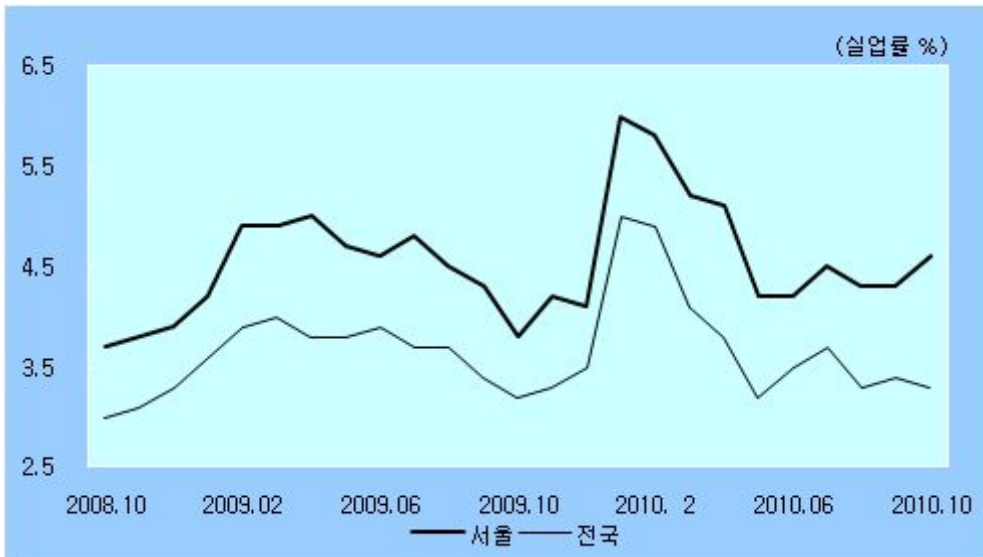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업률	서울	3.8	4.2	4.2	4.5	4.3	4.3	4.6
	남자	4.3	5.0	4.9	5.0	4.9	4.9	5.3
	여자	3.2	3.1	3.3	3.7	3.4	3.6	3.6
	전국	3.2	3.2	3.5	3.7	3.3	3.4	3.3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9	7.8	8.4	7.8	10.0	8.1	7.7
	전국	8.6	8.0	8.1	7.6	9.5	7.7	7.6
고령층 실업률	서울	2.0	3.2	2.0	1.7	7.2	4.3	3.1
	전국	1.6	1.9	1.6	1.5	5.8	2.1	2.0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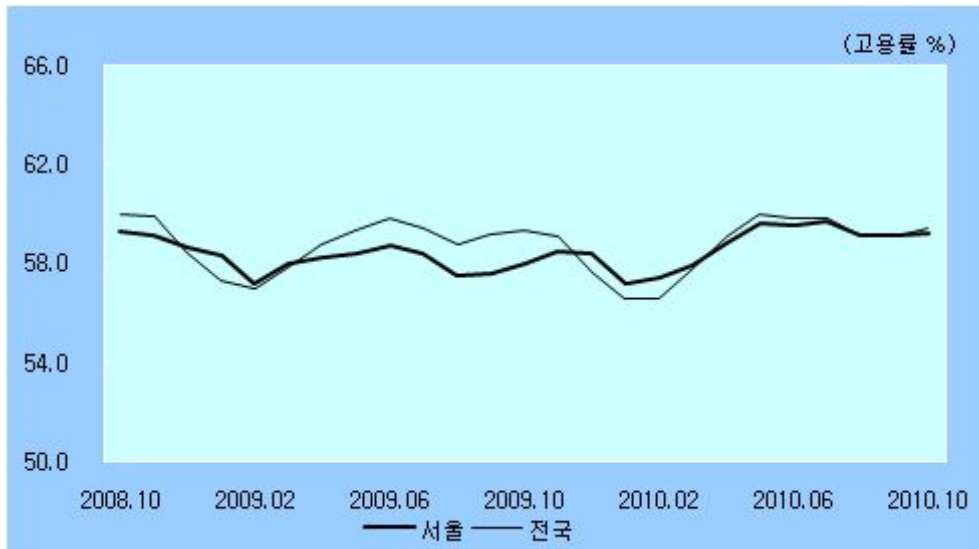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분	2009년 10월	2010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고용률	서울	58.0	59.6	59.5	59.7	59.1	59.1	59.2
	남자	68.7	69.3	69.5	70.0	69.6	69.4	69.5
	여자	48.0	50.4	50.0	50.1	49.2	49.4	49.5
	전국	59.3	60.0	59.8	59.8	59.1	59.1	59.4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3.9	45.6	43.8	42.8	42.8	44.1	44.0
	전국	39.9	41.1	40.7	40.1	40.1	40.8	40.6
고령층 고용률	서울	28.7	30.3	31.1	32.5	29.4	32.7	32.7
	전국	33.2	38.3	38.9	36.4	31.4	38.4	38.2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10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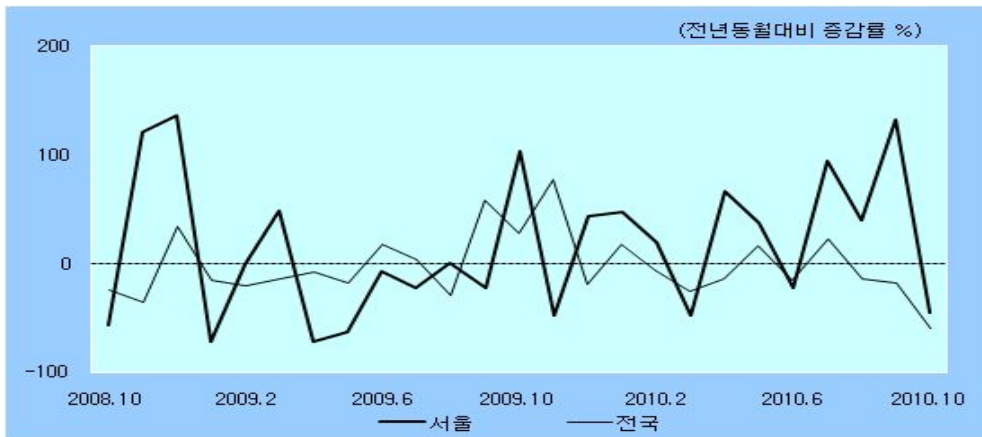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45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6%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조 2,73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6%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4.5%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2009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주택 및 공장, 교회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9.2% 감소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47.7%, 토목부문은 28.8% 각각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울	1,923	1,652	1,530	1,285	2,101	1,045	-45.6	-50.3	
발주자별	공공	227	331	231	71	185	192	-15.2	3.8
	민간	1,679	1,243	1,299	1,214	1,899	853	-49.2	-55.1
공종별	건축	1,716	1,437	1,419	1,150	1,914	898	-47.7	-53.1
	토목	207	215	111	136	188	148	-28.8	-21.3
전국	10,570	9,877	7,346	4,010	7,381	4,274	-59.6	-42.1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7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 두 달 연속 상승

- 10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두 달 연속 상승함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7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1%)의 주택매매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낙폭은 축소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9월	10월			
서울	102.5	101.6	101.4	-1.1	-0.1	
아파트	102.6	100.5	100.4	-2.2	-0.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1.8	100.7	100.6	-1.2	-0.1
	강남	103.3	102.4	102.3	-1.0	-0.1
전국	101.1	102.4	102.6	1.5	0.2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은 7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강북지역(-0.1%)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노원구(-0.4%), 은평구(-0.3%), 성동구(-0.3%), 도봉구(-0.2%)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노원구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인근 강북구 미아뉴타운, 성북구 길음 뉴타운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은평구(-0.4%)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은평뉴타운 3지구 입주물량과 불평3구역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함
- 성동구(-0.3%)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 공백이 확대되는 모습임

■ 강남도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낙폭은 전월과 동일

- 강남지역(-0.1%)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강서구(-0.2%), 송파구(-0.2%), 동작구(-0.2%), 구로구(-0.1%)를 중심으로 하락함
- 강서구(-0.2%)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개발 백지화 발표 이후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송파구(-0.2%)와 구로구(-0.1%)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세 위축으로 인한 거래 부진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

■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7개월 연속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0월 29일 기준)은 1,796.96만원으로 전월(1,798.29만원)대비 하락한 수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73만원), 서초구(2,851만원), 용산구(2,540만원), 송파구(2,377만원), 양천구(1,937만원), 광진구(1,870만원), 강동구(1,848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3만원), 도봉구(1,097만원), 중랑구(1,126만원), 강북구(1,143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3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 지방 주요지역 공급 감소에 따른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
- 서울(0.9%)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며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됨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3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0.6%)에서는 노원구(1.5%), 도봉구(1.4%), 광진구(1.4%), 용산구(1.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노원구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시기를 관망하며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함
- 도봉구는 인근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입주물량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 선호 증가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상승함
- 강남지역(1.0%)에서는 송파구(1.4%), 강동구(1.3%), 양천구(1.3%), 강서구(1.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송파구(1.4%)와 강동구(1.3%)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관망세 지속으로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재계약 선호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기존 물량이 부족한 모습임. 입주 2년이 도래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단지로 유입되는 수요 증가와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로 인한 물량 부족 심화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 양천구(1.3%)가 신정, 신월 뉴타운 이주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려는 학군수요가 가세되면서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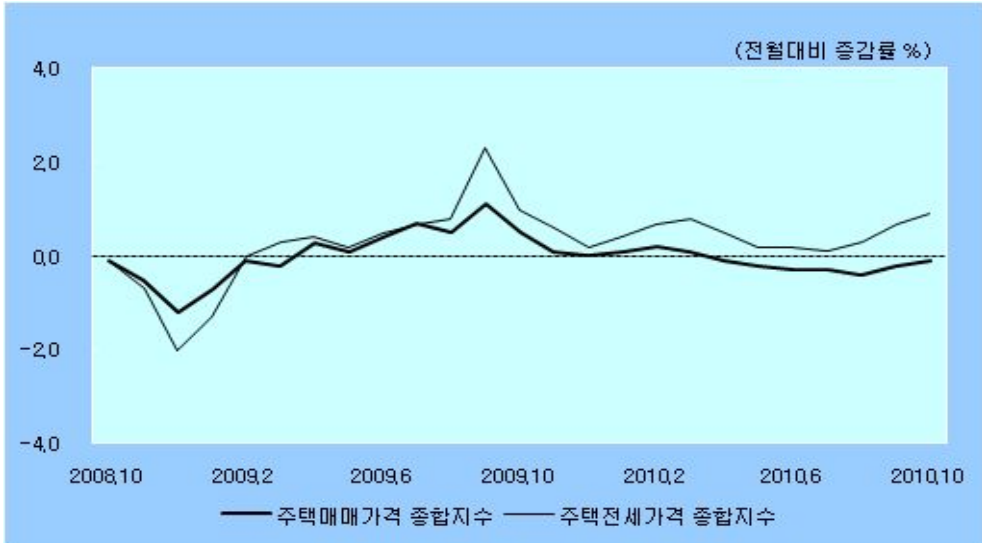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9월	10월	9월		
서울	105.1	110.1	111.1		5.7	0.9
아파트	106.8	112.6	113.9		6.7	1.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3.5	107.3	108.2		4.6	0.8
강남	106.7	112.9	114.0		6.9	1.0
전국	102.5	107.9	108.8		6.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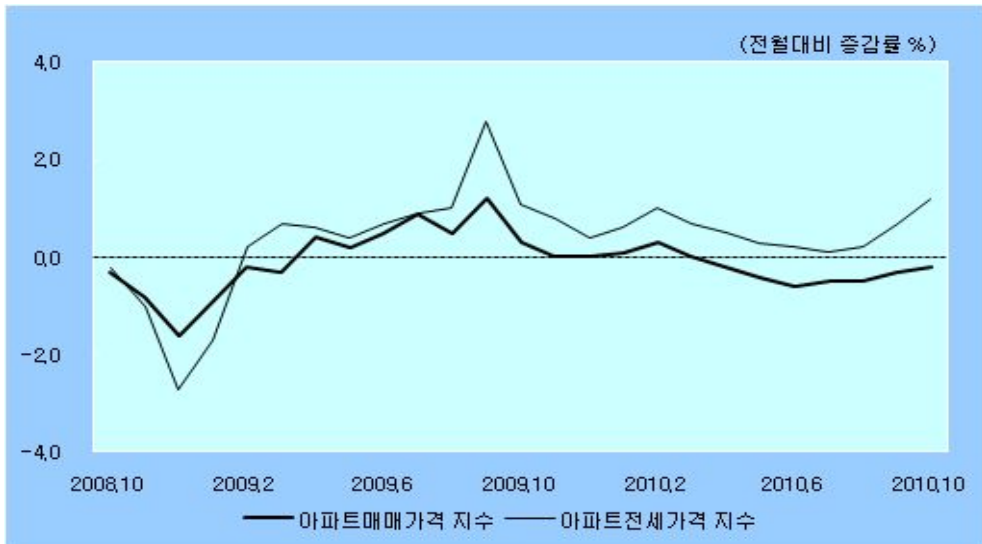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5%로 전월(43.0%)보다 0.5%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4월 41.5% → 5월 41.8% → 6월 42.1% → 7월 42.3% → 8월 42.6% → 9월 43.0%)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6.4%보다 12.9%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3.0%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5.9%, 강남 41.5%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4%p이며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0월 국고채 금리 하락하였다가 반등

- 10월 중 국고채 금리 내림세 지속하다가 반등
 - 10월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외국인의 채권순매수 지속, 기준금리 동결(10.14일)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저치인 3.05%(10.15일)까지 하락
 - 그러나 이후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 등으로 반등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큰 폭 하락한 후 반등하여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CD(91일) 금리는 금통위 회의(10.14일) 직전 2bp 올랐다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반락하여 전월 말 수준(2.66%)을 유지
- KOSPI 지수 등락을 반복
 - 10월 들어 코스피는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 단기금등에 따른 부담 등 하락요인과 주요국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 원화강세 전망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거듭함
 - 11월 들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영향 등으로 빠르게 상승
 - 11월 10일에 1,968p 까지 올라 2007년 11월 14일 1,973p 이후 최고치를 기록. 다만 11일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1.3조원)에 따라 급락
(6월말 1,698p → 7월말 1,759p → 8월말 1,743p → 9월말 1,873p → 10월말 1,883p)
- 10월중 외국인 국내주식 대규모 순매수
 - 10월 중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대규모 순매수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 11월 들어서도 순매수세 지속
 - 외국인 순매수(조원): → 4월 5.5조원 →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 7월 3조원
→ 8월 -0.6조원 → 9월 4.5조원 → 10월 4.1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10월	7월	8월	9월(A)	10월(B)	11.25일		
금 리	국고채(3년)	4.47	3.88	3.73	3.48	3.24	3.31	-0.25
	CD(91일물)	2.79	2.58	2.63	2.66	2.66	2.80	0.03
	콜금리(1일)	1.99	2.21	2.27	2.27	2.26	2.54	0.00
	장단기 금리차 ¹⁾	1.68	1.30	1.10	0.82	0.58	0.51	-0.28
주 가	KOSPI	1630.61	1,731.12	1,762.18	1,815.75	1,889.70	1,927.68	53.57
	KOSDAQ	501.83	490.97	475.35	482.36	509.94	508.28	7.01
환율 (W/US\$)	1,174.80	1,204.94	1,180.05	1,162.90	1,122.23	1,137.80	-17.1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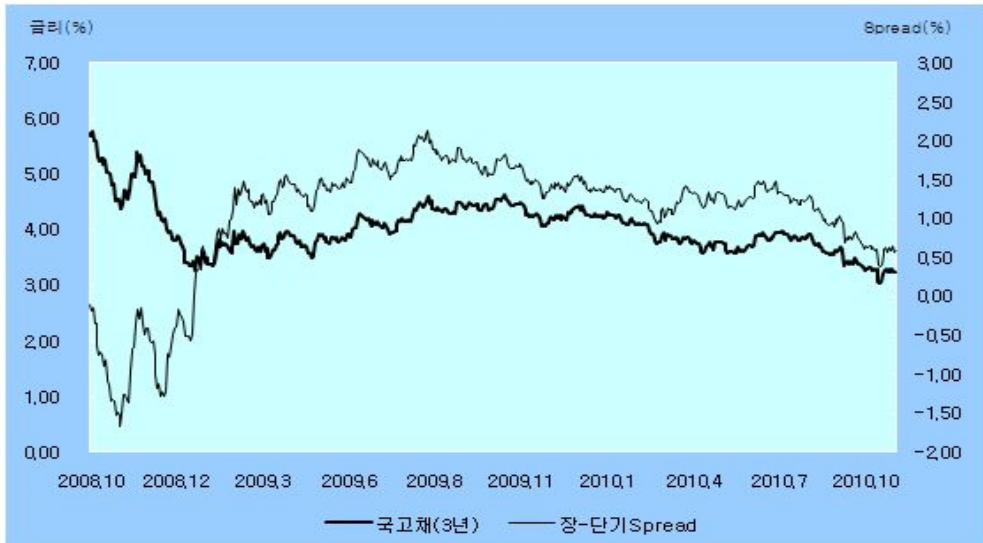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집단대출 증가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일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계절 요인(이사철)등의 영향으로 개별대출이 늘면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연휴 카드대금 결제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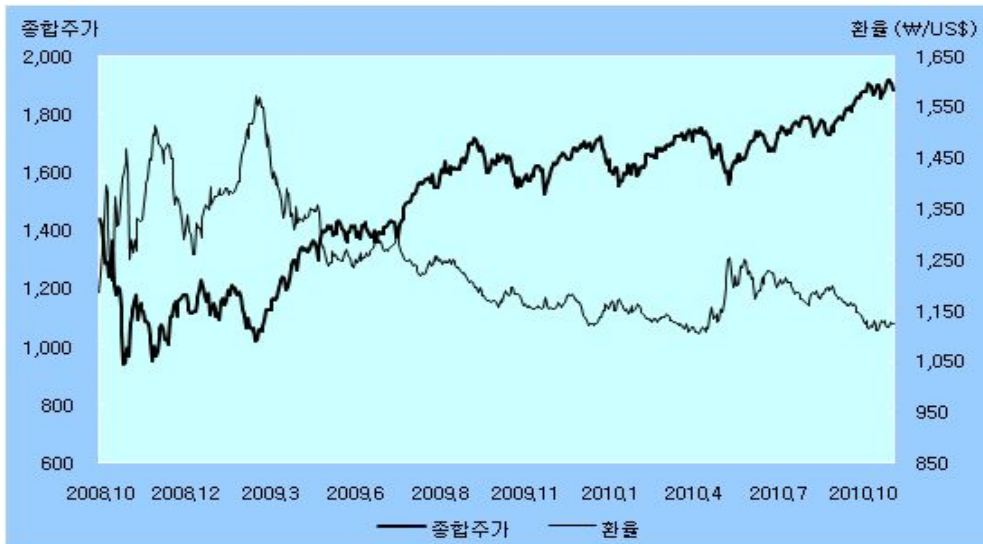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6월	7월	8월	9월	2010년		
	9월						10월		
가계대출 ¹⁾	20.1	2.5	1.5	1.0	1.3	2.7	421.6	424.2	0.62
주택담보대출 ²⁾	25.4	2.5	2.2	-0.3	1.7	2.2	276.8	279.0	0.7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0	-0.8	1.3	-0.4	0.5	143.8	144.3	0.3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9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0조 9,15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5,777억원 (0.29%) 증가
- 9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301조 6,668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 6,680억원 (0.51%)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9월	6월	7월	8월	9월		
서울	예금은행	421,465.70	421,874.9	424,302.1	423,386.5	425,692.8	2,306.3	0.54
	비은행기관	90,509.60	92,695.8	92,980.0	94,951.2	95,222.6	271.4	0.29
	합계	511,975.30	514,570.7	517,282.1	518,337.7	520,915.4	2,577.7	0.50
전국	예금은행	958,578.10	975,225.8	978,910.0	978,486.6	983,395.2	4,908.6	0.50
	비은행기관	298,099.40	310,582.4	312,023.7	316,512.2	318,271.6	1,759.4	0.56
	합계	1,256,677.50	1,285,808.2	1,290,933.7	1,294,998.8	1,301,666.8	6,668.0	0.51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10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99개로 전년동월대비 0.3%(5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4.4%(214개) 증가하였음
- 10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822개로 전월비로는 17.8%(727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6.2%(282개) 증가하여 지난달 감소에서 1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함. 10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함

■ 서울의 10월 제조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0.8%(11개) 감소, 건설 및 설비업은 18.9%(2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12.6%(31개) 증가하였음
- 건설 및 설비업이 전년동월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704	1,850	1,686	1,485	1,699	214	14.4	-5	-0.3
서비스업	1,330	1,412	1,310	1,148	1,319	171	14.9	-11	-0.8
제조업	246	313	264	243	277	34	14.0	31	12.6
건설 및 설비업	122	122	104	85	99	14	16.5	-23	-18.9
전국	4,540	5,260	4,605	4,095	4,822	727	17.8	282	6.2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10월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신설/부도법인 배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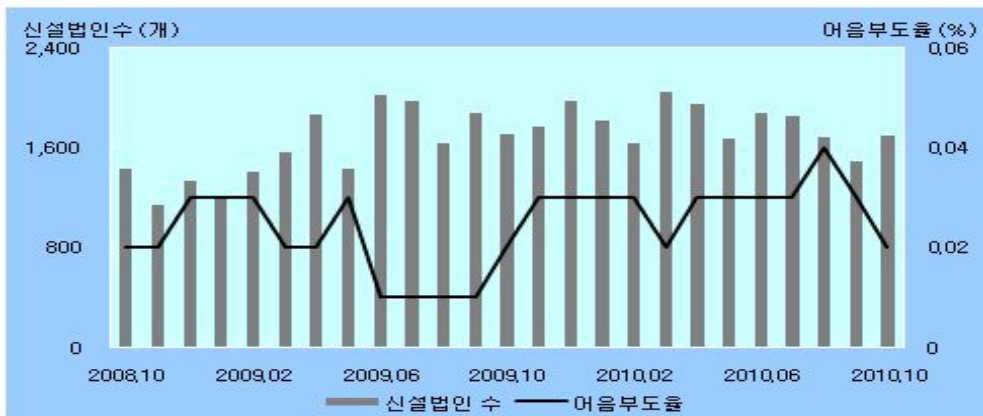
- 10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하락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2%p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8개로 전월대비 2.0%(1개) 감소,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9개로 전월대비 8.4%(10개) 증가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4.7배로 전월(41.3배)보다 상승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0.8배로 전월(51.2배)보다 하락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3	0.02	-0.01	-33.3
	부도업체 수	43	56	58	49	48	-1	-2.0
	신설/부도법인배율	81.1	45.1	38.3	41.3	44.7	3.4	-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3	0.01	-0.02	-66.7
	부도업체 수	124	122	122	119	129	10	8.4
	신설/부도법인배율	52.2	62.6	49.5	51.2	50.8	-0.4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 건수·금액 감소

■ 보증지원 금액·건수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월중 4,012건, 57,509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49.4% 감소, 보증금액 49.1% 감소하였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0.1% 감소하였음.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22.8%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19.1% 감소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5,197	6,814	7,186	7,934	4,012	-3,922	-49.4	-1,185	-22.8
금액	71,127	102,529	108,917	113,010	57,509	-55,501	-49.1	-13,618	-19.1
건당평균금액	13.7	15.0	15.2	14.2	14.3	-0.1	-0.7	0.6	4.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종 지원 비중 상승

- 10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2.2%로 전월(7.3%)대비 4.9%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5.3%로 전월(37.9%)대비 2.6%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6%로 전월(7.0%)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2.1%로 전월(31.7%)대비 0.6%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305	1,287	704	1,198	518	4,012
비율	7.6	32.1	17.5	29.9	12.9	100.0
금액	7,003	20,305	10,104	13,328	6,769	57,509
비율	12.2	35.3	17.5	23.2	11.8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금액기준 소상공인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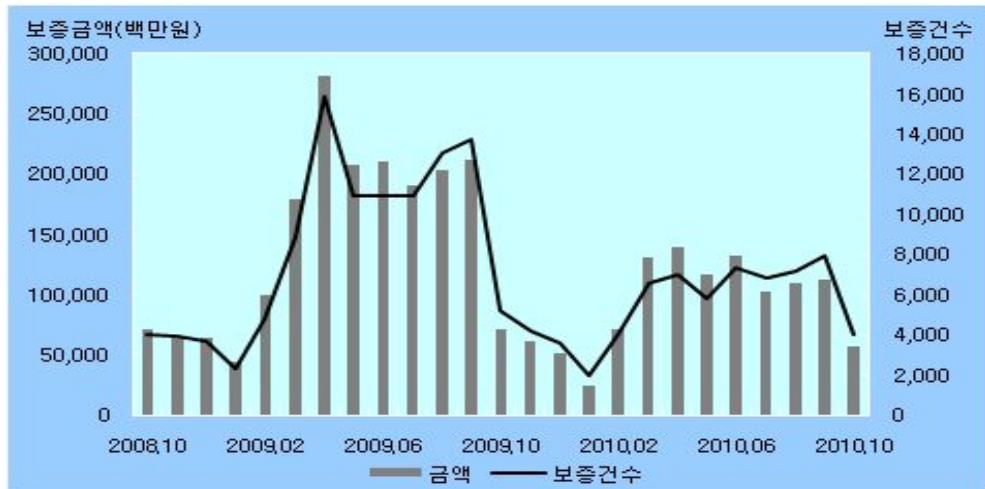
- 10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 지원이 금액기준 92.6%로 전월(93.6%)대비 1.0%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변동 없음
- 반면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5.6%로 전월(4.0%)대비 1.6%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도 1.6%로 전월(1.4%)대비 0.2%p 증가함. 중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8%로 전월(2.4%)대비 0.6%p 감소했으며, 건수기준은 0.7%로 전월(0.9%)대비 0.2%p 감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8	2010.9	2010.10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7,037	7,749	3,919	-3,830
	비율	98.0	97.7	97.7	0.0
	금액	100,713	105,764	53,252	-52,512
	비율	92.5	93.6	92.6	-1.0
소기업	건수	112	110	64	-46
	비율	1.5	1.4	1.6	0.2
	금액	5,455	4,542	3,235	-1,307
	비율	5.0	4.0	5.6	1.6
중기업	건수	37	75	29	-46
	비율	0.5	0.9	0.7	-0.2
	금액	2,749	2,704	1,022	-1,682
	비율	2.5	2.4	1.8	-0.6
합계	건수	7,186	7,934	4,012	-3,922
	비율	100	100	100	0.0
	금액	108,917	113,010	57,509	-55,501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10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서울의 수출은 41.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3% 증가하였고, 수입은 87.7억 달러로 31.2% 증가
- 10월 전국의 수출은 433.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6% 증가하였고, 수입은 368.8억 달러로 21.3% 증가

■ 서울의 10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26,097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26,936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130.6% 증가, 수입의 경우 무선통신기기로 전년동월대비 218.1%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154	4,256	4,090	3,783	3,758	4,172	1,018	32.3
	수입	6,684	8,746	8,960	8,640	8,899	8,768	2,084	31.2
전국	수출	33,970	41,921	40,949	36,965	39,509	43,358	9,388	27.6
	수입	30,397	35,493	35,443	35,247	34,978	36,880	6,483	21.3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0월		2010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153,922	9.0	4,171,930	32.3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50,821	939.7	526,097	50.0
2	자동차부품	189,166	124.5	436,247	130.6
3	편직물	181,825	4.6	229,093	26.0
4	무선통신기기	142,773	-2.1	201,414	41.1
5	반도체	187,174	84.6	194,596	4.0
6	합성수지	153,050	107.8	157,518	2.9
7	고무제품	118,225	24.4	148,144	25.3
8	컴퓨터	158,413	55.7	123,200	-22.2
9	합성고무	81,126	233.7	119,311	47.1
10	의류	83,252	-2.6	96,58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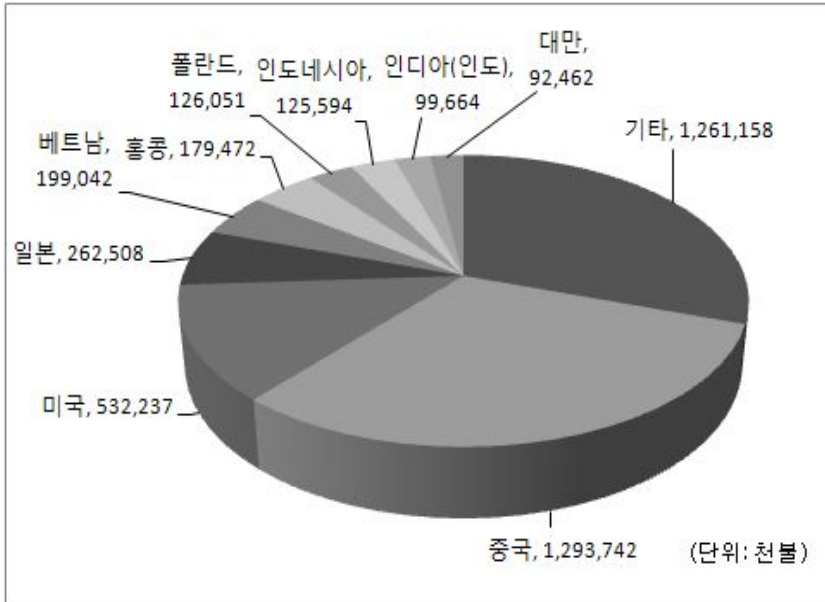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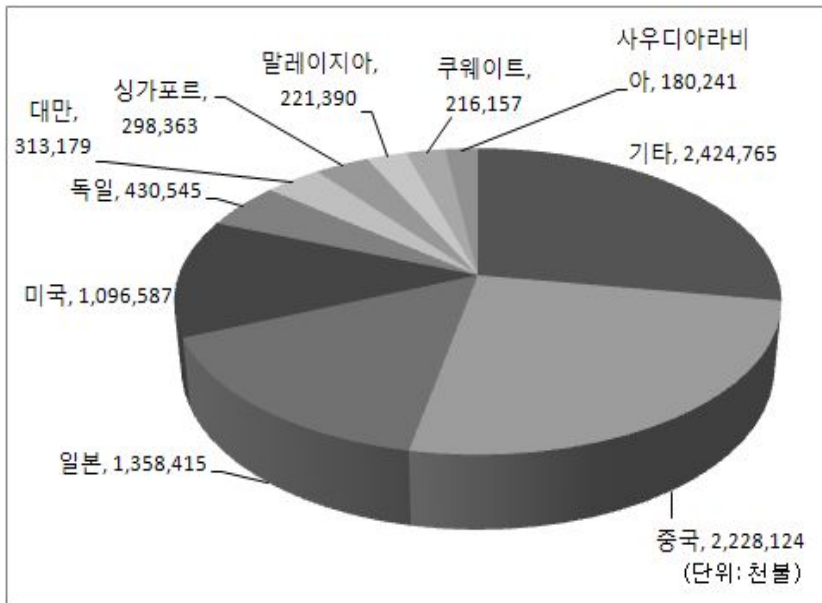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0월		2010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684,397	-10.4	8,767,766	31.2
1	반도체	647,663	51.4	726,936	12.2
2	석유제품	294,588	564.3	694,746	135.8
3	컴퓨터	436,491	5.3	577,798	32.4
4	의류	292,714	58.9	433,092	48.0
5	무선통신기기	106,443	-9.5	338,568	218.1
6	농약 및 의약품	159,167	43.2	249,713	56.9
7	자동차	163,471	39.1	233,959	43.1
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8,667	66.5	224,664	74.6
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9,882	28.7	192,378	20.3
10	플라스틱제품	194,373	175.2	189,533	-2.5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